

## 영향관계로 본 이규영의 품사 분류

金 海 錦\*

### 국문초록

이규영(1890~1920)은 네 저술에서 품사를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 『온갖것』은 22개의 품사를 설정하고, 『말듬』은 9개, 『한글적새』는 15개, 『현금 조선문전』은 9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품사의 분류를 주시경과 김두봉의 영향관계 속에서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를 ‘언’, ‘억’에 포함했는지에 따라 이규영의 저술이 주시경과 김두봉의 어느 저술과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말듬』은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과 부분적으로 김희상의 『조선어전』(1911)의 영향을, 『온갖것』과 『한글적새』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영향을, 『현금 조선문전』은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적으로 주시경의 영향을 받은 『말듬』과 김두봉의 영향을 받은 『현금 조선문전』을 제외한 『온갖것』과 『한글적새』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하면서도 나름대로 이규영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예컨대, 주격 조사를 ‘만’에, 목적격 조사를 ‘금’에 포함시키는 이규영의 처리 방식이 주시경의 용어인 ‘만이’와 ‘금이’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이해한 기초 상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규영은 ‘만’에 목적격 조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금’에 포함시키지만 주시경과 김두봉은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를 하나로 묶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종결어미를 ‘만’에 포함하고 있지만 주시경이나 김두봉은 ‘끗’ 또는 ‘맺’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밖에 ‘입, 업, 읊’의 용례로 제시한 파생접사를 품사로 파악하고 있지만 주시경과 김두봉은 단어형성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 차이가 포착된다.

[주제어] 품사 분류, 영향관계, 문법 용어, 언, 억, 만, 금, 입, 업, 읊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이규영의 품사 분류에 대한 품사별 분석 |
| II. 이규영의 품사 분류에 대한 저서별 분석 | IV. 결 론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snu201231253@snu.ac.kr

## I. 서 론

본고는 검돌 이규영(1890~1920)의 저술 중에서 『온갖것』(1913), 『말듬』(1913), 『한글적새』(1916~1919), 『현금 조선문전』(1920)을 중심으로 이규영의 저술에 보이는 품사 분류를 통하여 동시대의 한국어학자들의 저술과의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한다.<sup>1)</sup>

이규영의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김민수(1980)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이규영의 저술과 주시경과 김두봉의 저술과의 영향관계를 대략적으로 밝히고 있다.<sup>2)</sup> 정혜린(2011)은 『말듬』, 『한글적새』와 김두봉의 『조선말본』 세 저술의 문법 용어를 비교하면서 『한글적새』 문법의 어학사적 위치를 조명한 논의이다.<sup>3)</sup> 『현금 조선문전』은 김두봉의 『조선말본』의 요약이라든가<sup>4)</sup> 배똥문법에 근거한 제3의 문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5)</sup> 이는 『현금 조선문전』과 김두봉의 『조선말본』은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문(2013)은 『말모이』를 주시경의 ‘씨난’과의 관계상에서 다룬 논의로 『말모이』는 주시경의 『말의 소리』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들 관계를 논의하는 과정에 『말모이』 편찬 과정에 참여한 이규영의 『온갖것』의 ‘우리말 씨 문음의 갈래 곳 씨들’과 ‘씨난의 틀 자세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김두봉의 『조선말본』을 결론 부분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조선말본』은 『말모이』의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의 소리』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sup>6)</sup>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말모이』의 편찬에 관련이 있는 『말의 소리』, 『온갖것』, 『한글적새』, 『조선말본』을 하나로 묶어 같이 영향관계를 다룰 가능성과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상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선행연구에서 이규영의 네 저술과 다른 학자의 저술 사이의 직접·간접적 영향관계를 검토한 바 있다. 아쉬운 점은 이규영의 네 저술에서 반영된 품사에 대한 인식을 동시대의 한국어학자들과의 영향관계를 고찰하여 상세하게 기술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온갖것』, 『말듬』,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을 면밀히 검토할 것인데 『온갖것』, 『한글적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왜냐하면 『말듬』은 주시경의 영향을, 『현금 조선문전』은 김두봉의 영향을 받았지만 『온갖것』과 『한글적새』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하면서도 나름대로 이규영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갖것』과 『한글적새』에서 제시한 품사 분류를 통하여 동시대의 한국어학자들의 저술과의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한다.<sup>7)</sup> 이는 역으로 이규영의 네 저술을 통하여 이와 영향관계에 있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이 어떻게 동시대의 다른 학자들에게 수용되었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다.

1) 이규영의 문법 저술로는 이 네 저술 이외에도 『읽어리 가르침』(1918~1919)이 있으나 선본을 구할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독본이라고 김민수에서 언급되었는바 여기서는 제외했다. 김민수, 「이규영의 문법연구」, 『한국학보』 19, 1980, 64쪽.

2) 김민수, 위의 논문, 1980, 57~86쪽.

3) 정혜린, 「稿本 『한글적새』 문법의 어학사적 위치에 대한 일고찰」, 『국어학논집』 7, 역락, 2011, 77~78쪽.

4) 김윤경, 『朝鮮文字及語學史』, 조선기념도서출판관, 1938, 470~471쪽; 강복수, 『國語文史研究』, 형설출판사, 1972, 8쪽.

5) 김민수, 위의 논문, 1980, 83쪽.

6) 김병문, 「주시경의 ‘씨난’과 『말모이』의 관계」, 『주시경과 그의 시대언어적 근대의 기회』, 소명출판, 2013, 330~352쪽.

7) 네 저술의 성격을 같게 볼 수 있는지 『한글적새』를 통하여 검돌의 문법관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고의 구성은 2장에서 이규영의 품사 분류에 대하여 저서별로 분석한다. 3장에서는 이규영의 품사 분류에 대하여 품사별로 분석하여 이규영의 네 저술의 영향관계 및 다른 한국어학자들과의 영향관계를 살핀다. 4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핀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맺는다.

## II. 이규영의 품사 분류에 대한 저서별 분석<sup>8)</sup>

이규영의 저술들로 『온갖짓』, 『말듬』, 『읽어리 가르침』,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등이 있는데 『읽어리 가르침』은 독본의 성격을 띠고 있어 품사 분류를 확인할 수 없지만 기타 저술들에서 이규영의 품사 분류를 확인할 수 있다. 『온갖짓』에서는 22가지를 설정하고, 『말듬』에서 9개, 『한글적새』에서 15개, 『현금 조선문전』에서 9개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온갖짓』이 이규영의 기타 저술인 『말듬』,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과 다른 점이 포착된다. 즉, 『온갖짓』의 품사 분류가 제일 많고, 학교문법의 ‘관형사’와 ‘부사’가 ‘임(제, 닛, 억, 언, 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기타 저술과 구분된다. 이밖에 『온갖짓』의 ‘임’에 포함되어 있던 ‘언, 억, 드’가 『한글적새』에 와서는 ‘임’을 비롯한 다른 품사와 같은 층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학교문법의 ‘종결어미’를 포함하는 ‘만’은 『한글적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기타 두 저술인 『말듬』과 『현금 조선문전』의 품사 분류를 보면 전자는 주시경(1910), 후자는 김두봉(1916)과 같은 품사 분류를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절을 달리 하여 살펴겠다.

<표 1> 네 저술에서의 품사 분류

| 저술      | 품사 분류                     |                  |                                 |
|---------|---------------------------|------------------|---------------------------------|
| 온갖짓     | 몸                         | 밋                | 임(제, 닛, 억, 언, 드), 움, 엇          |
|         |                           | 빋                | 입, 읊, 업                         |
|         | 토                         | 밋                | 만(맏, 심), 금(둠, 갈, 손, 겁), 둠(잇, 둘) |
|         |                           | 빋                | 때, 늑, 술                         |
| 말듬      | 임, 읊, 엇, 언, 억, 놀, 잇, 곁, 꺾 |                  |                                 |
| 한글적새    | 몸                         | 임, 읊, 언(입, 읊, 업) |                                 |
|         | 모임                        | 언, 억, 늑          |                                 |
|         | 토                         | 잇, 금, 만(늑, 때, 술) |                                 |
| 현금 조선문전 | 몸                         | 임, 언, 읊          |                                 |
|         | 토                         | 것, 잇, 맏          |                                 |
|         | 모임                        | 언, 억, 늑          |                                 |

8) 본고의 논문 구조를 목차에 잘 드러내는 방향으로 수정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1. 『온갖것』의 품사 분류

『온갖것』은 全1卷의 필사본인데, 일종의 備忘錄으로서 책의 제목 그대로 온갖 것(내용에는 온갖것)을 적어 놓은 것이다. 『온갖것』은 ‘하나’, ‘둘’, ‘셋’으로 나뉘어 있는데, 문법에 관련된 내용은 ‘둘’에 언급되어 있다. 품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말의 씨몸들의 갈래’와 ‘씨난들의 자세한 것’에서 다루어지고 있다.<sup>9)</sup>

‘씨난들’에는 ‘씨’를 22가지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데 먼저 몸과 토로 양분하고 나서 몸과 토를 각각 밋과 빗으로 양분하고 있다. 이어서 밋과 빗을 하위분류하여 몸밋은 ‘임, 움, 엇’으로 하위분류하고, 몸빗은 ‘입, 읍, 업’으로 하위분류한다. 토밋은 ‘만, 금, 돛’으로 나누고 토빗은 ‘때, 높, 솔’로 나눈다. 이어서 임은 다시 ‘제임, 녃임, 억임, 언임, 드임’으로 하위분류하고 있다. 움은 ‘안과 밖’으로 나눈다. 만은 ‘심과 땡’으로 양분한다. 금은 ‘돛, 갈, 손, 깃’으로 하위분류하고 돛은 ‘잇과 둘’로 나눈다. 이처럼 『온갖것』에서는 품사를 2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말모이』의 분류와 같다.<sup>10)</sup> 『온갖것』과 내용이 비슷한 『말모이』의 문법 항목을 김병문(2013)에서는 품사의 분류로 보고 있다.<sup>11)</sup> 본고는 이에 따라 『온갖것』의 22개를 품사의 분류로 보고자 한다.<sup>12)</sup>

『온갖것』의 품사 분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모이』의 문법 정보를 제시 순서에 약간의 수정을 하여 보이고 『온갖것』의 용례를 제시할 것이다.

### (1) 『온갖것』의 품사 분류 및 그 용례

- (임) (제) [名詞] 리순신, 평양, 사람, 땅
- (녓) [代名詞] 이, 그, 저, 나, 어, 제, 하나, 둘, 셋, 이, 것, 줄, 바, 누누, 무엇, 얼마
- (언) [名詞] 우에 쓰는 말 한, 두, 세, 무릇, 원, 판, 다만, 원, 첫, 새, 오래, 어느, 무슨
- (억) [副詞] 더, 더욱, 곳, 늘, 각금, 거진, 겨우, 못, 왜, 엇지, 아마, 아주, 꼭, 반듯이, 왈각, 출렁, 얼룩, 또, 다시
- (드) [느끼고 부르고 對答하는 소리들] 아, 하, 구구, 돌돌, 오래, 예, 오냐, 어머니, 글세, 암, 글엄
- (움) (안) [內動詞]
- (밖) [外動詞]
- (엇) [形容詞] 어질, 착하, 무겁, 많, 재, 날내, 동글
- (입) [名詞를 뜻바꾸게 하든지 形動을 名詞되게 하는 몸] 들, 뿐, ㅁ, 기, 이, 들레
- (읍) [動詞를 뜻바꾸게 하든지 名形을 動詞되게 하는 몸] 이, 어지, 으리, 지
- (업) [형용사를 뜻바꾸게 하든지 名動을 形容詞되게 하는 몸] 차, 알, 립, 스럽

9) 세로쓰기를 가로쓰기로 적고 띄어쓰기를 현대적 관점에서 제시하되 나머지는 원문의 것을 가급적 그대로 밝히기로 한다. 이하 다른 문헌도 한가지이다.

10) 김병문, 앞의 논문, 2013, 341쪽.

11) 김병문, 앞의 논문, 2013, 347쪽.

12) 『온갖것』의 서지 성격상 『말모이』를 기록한 비망록이어서 품사 체계라는 용어보다 품사 분류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기타 저술에 보이는 것도 품사 분류로 한다.

- (만) (심) [主語되게 하는 토 이, 가, 게서, 아, 야, 시여, 여, 에서, 서,  
(맺) [說明語되게 하는 토 도다, 나, 나잇가, 니라, 아라, 어라, 소서, 어다
- (금) (뎡) [名代를 언되게 하는 토 의  
(갈) [形, 動을 언되게 하는 토 ㄴ, 은, 단, 이란, 으란  
(손) [名代를 副詞되게 하는 토 에, 에서, 보다, 처럼, 리, 을, 를  
(깁) [形動을 副詞되게 하는 토 어, 아, 먼, 거든, 다가, 러, 게, 도록
- (뎡) (잇) [連續詞 고, 면서, 니, 매, 와, 과  
(둘) [範圍 定하는 토 와, 과, 도, 는, 은, ㄴ들, 든지, 야, 만, 마다, 까지, 사록, 완대, 므로, 데
- (때) [時間發表하는 토 아야, 어야, 아, 앓, ㄴ, 든  
(높) [尊稱하는 토 시, 읍, 브, 압  
(솔) [소리 돕는 것 이, 으

(1)의 『온갖것』의 품사 분류를 보면 『말모이』에서 독립적인 하나의 품사로 다루고 있는 것들을 상위 범주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 포착된다. 다시 말하면 ‘제, 녀, 언, 억, 드’를 ‘임’으로, ‘안, 밖’을 ‘움’으로 ‘심과 맺’을 ‘만’으로, ‘뎡, 갈, 손, 깁’을 ‘금’으로, ‘잇, 둘’을 ‘뎡’으로 묶고 있는 것이다. 이외의 내용은 『말모이』에서 제시한 것과 비슷하다.

‘제, 녀, 언, 억, 드’를 ‘임’으로 묶어서 다루는 논의는 주시경(1914)의 『말의 소리』에서 포착된다. ‘안, 밖’이라는 용어는 한자어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13)</sup> 이는 주시경, 김두봉, 이규영의 기타 저술에서는 ‘제임, 남움’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하게 된다.

『온갖것』에서 사용되는 ‘만’, ‘금’은 주시경(1910)에서 ‘것’을 하위분류할 때 사용된 용어이다. ‘만’에 ‘심’과 ‘맺’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만’을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품사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온갖것』의 ‘통사론’에서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로 양분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을 문장에서 ‘관형어’,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품사로 해석하고 있다. 현행 학교문법의 ‘을/를’을 ‘금’에 포함시켜 ‘주격 조사나 호격 조사’와 별도로 처리한 점은 문장의 해석에서도 평행되게 나타난다. 이규영은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로 양분하고 이외의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으로 파악하고 ‘을/를’을 ‘부사어’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특기할 점은 이규영이 주시경(1910)처럼 ‘갈’, ‘손’과 ‘깁’을 ‘금’의 하위분류로 다루면서도 주시경(1910)과 달리 ‘갈’을 ‘언’의 하위로, ‘손’과 ‘깁’을 ‘억’의 하위분류로 편입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규영이 ‘갈’은 선행 성분과 함께 ‘관형어’를 이루는 것으로, ‘손’과 ‘깁’은 선행 성분과 함께 ‘부사어’라는 통사론적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뎡’에는 현행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연결어미와 보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말모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는 부분으로 현행 학교문법의 시제, 경어법 선어말어미도 있다. 매개모음의 ‘이, 으’도 언급하고 있다. ‘입, 읍, 업’과 같은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을 파생하는 접사도 품사로 분류하고 있다.

13) 이병근(『最初の言語辭典 『말모이』(稿本)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 2: 1, 한국언어학회, 1977, 79쪽)은 “『온갖것』은 漢字語系統의 語法用語를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2. 『말듬』의 품사 분류

『말듬』은 쏘1卷, 필사본으로 1913년경에 나온 간결한 국어문법책(小文典)이다. 품사에 관련된 부분은 ‘씨난갈’에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씨난틀’과 ‘씨난갈’에서 보이고 있다.

### (2) 『말듬』의 품사 분류 및 그 용례

임 : 일흠의 씨를 이름이니 일흠에 이와 ㅁ만을 떨어 겹하여 임이 됨.

(본) : 사람, 일, 집, 뫼, 물, 달, 운두, 나, 네, 우리, 그이, 저기

움 : 움죽이는 씨를 이름이니 움죽임에 움만 떼어 움이라 함.

(본) : 티, 날, 흐르, 쓰, 울, 오, 가, 갈

엇 : 엇더하다는 씨를 이름이니 엇더함에 엇만 떼어 엇이라 함.

(본) : 푸르, 검, 히, 좋, 단순하, 똑똑하, 붉, 푸르

언 : 어더한의 씨니 어더한에 어와 ㄴ만을 겹하여 언이라 함.

(본) : 좋은, 붉은, 맑은, 높은, 푸른, 흰, 검은

억 : 엇더하계의 씨니 어더하계에 어와 ㄱ만 떼어 겹하여 억이 됨.

(본) : 썩, 매우, 가장, 대단이

놀 : 놀내서 하는 씨니 놀내에 논만 떼어 놀이라 함.

(본) : 아, 응, 암, 예구

잇 : 두말을 이어서 주는 씨니 이어서에 이와 ㅅ만 겹하여 잇이라.

(본) : 와, 과, 고, 먼

결 : 임씨 같에 잇어 임씨로 임씨로는 하계 하는 씨니 곁에 잇음으로 곁이라 함.

(본) : 가, 이, 의, 예, 을, 를, 은, 는

곶 : 말 곶에 잇는 씨니 이려함으로 곶이라 함.

(본) : 라, 이라, 다, 이다, 오, 이오, 압소서

(2)의 『말듬』의 품사 분류는 주시경(1910)의 『국어문법』과 같이 ‘임, 엇, 움, 겹, 잇, 언, 억, 놀, 곶’ 등 9개로 되어 있다. ‘억씨’에 ‘대답억씨’를 두고, ‘언씨의 때’와 ‘놀씨의 갈래’를 새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엇’, ‘언’, ‘억’에도 새로운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sup>14)</sup> 가령 ‘엇’에 ‘엇던 엇씨’, ‘움의 엇씨’, ‘헐의 엇씨’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주시경(1910)에서 ‘엇’을 ‘物品, 物貌, 行品, 行貌, 때, 헐’으로 분류한 것과 다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분류는 ‘의미’의 기준으로 분류하던 것을 부분적이나마 추상적인 명칭으로 명명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규영은 주시경(1910)과 같이 현행 학교문법의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조사’, ‘위격 조사’, ‘조격 조사’, ‘공동격 조사’를 하나의 ‘곁’에 묶어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주시경(1910)과 다른 새로운 분류가 확인되는데 ‘주격 조사’를 ‘임이만’에, ‘목적격 조사’를 ‘썸이만’에, ‘보조사’를 ‘넙은만’에, ‘기타 격조사’를 ‘금이’에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이처럼 『말듬』은 주시경(1910)의 분류를 부분적으로 개편하였으나 전적으로

14) 김민수, 앞의 논문, 1980, 74~75쪽.

주시경문법을 바탕으로 하여 간결하게 짚은 기초문법인 것이다.<sup>15)</sup>

### 3. 『한글적새』의 품사 분류

『한글적새』는 全6卷, 필사본으로 1916~1919년 사이에 저술한 文法表 및 國語資料集이다.<sup>16)</sup> 현재 볼 수 있는 『한글적새』 중에 첫째째 말본 ㄱ의 ‘씨갈래의 쓰임’이 품사 분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3) 『한글적새』의 품사 분류 및 그 용례

임 : 이름

사람, 이순신, 한울, 한울님, 나, 너, 저, 그, 대, 그, 이, 저, 하나, 둘, 열, 온, 이, 것, 줄, 바,  
무엇, 얼마, 누구

음 : 음죽임

자, 맞, 먹, 치, 시기, 먹이

언 : 어떠한

어질, 무겁, 날래, 재, 둥글, 크, 작, 이르, 늦, 많, 적, 이러하, 저러하, 그러하, 어떠한

언 : 어떠한

요, 고, 고, 올, 새, 외, 첫, 맨, 한, 두, 윈, 어느, 웬, 무슨

억 : 더욱, 더, 곳, 늘, 각금, 거진, 겨우, 왜, 못, 어찌, 아마, 왈각, 출렁, 얼룩, 또, 다시

늑 : 늑김

아, 하, 휴유, 글세, 암, 여보, 구구, 오래, 네, 오나

만 : 으뜸감의 토

이, 가, 께서, 께압서, 아, 야, 시여, 이시여, 예서, 도, 는, 은, 만, 야, 나, 나이까, 도다, 로다,  
니라, 니다, 아라, 어라, 소서

금 : 붙음감의 토

의, 옛, 인, ㄴ, 은, ㄹ, 을, 예, 로, 보다, 를, 을, 게, 어, ㅅ록

잇 : 잇어주는 토

와, 과, 고, 나, 며, 면서, 이고, 으나, 이며, 이면서

입 : 입씨의 빗몸

들, 뿐, ㅁ, 음, 이, 기

업 : 업씨의 빗몸

알, 열, 브, 스럽, 답, 업, ㅂ

읍 : 읍씨의 빗몸

이, 히, 지, 거리, 이, 아지, 어지

높 : 높이는 토

15) 김민수, 앞의 논문, 1980, 85쪽.

16) 김민수, 위의 논문, 1980, 78쪽.

시, ㅅ  
 때 : 때를 가르치는 토  
 는, ㄴ, ㄹ, 을, ㅁ, ㅂ  
 술 : 소리보태는 토  
 이, 으

『한글적새』의 품사 분류를 보면 『온갖것』, 『말모이』와 비슷한 점을 많이 포착하게 된다. 이밖에 ‘언, 억, 드’를 ‘임’에서 분리하여 처리한 것은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의 품사 체계와 비슷한 일면이 포착된다. 또한 ‘만’의 용례를 보면 『한글적새』는 『온갖것』, 『말모이』의 ‘만’에 ‘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잇’을 『온갖것』에서 ‘뒹’의 하위분류로 파악하던 것을 『한글적새』에서는 ‘임’ 등 품사와 동등한 층위로 파악하고 있다. ‘입, 업, 읊’ 등 ‘명사, 형용사, 동사’를 파생하는 접사를 『온갖것』, 『말모이』에서처럼 품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학교문법에서 ‘감탄사’에 해당하는 ‘늑’의 용례가 더욱 풍부해진 점도 포착할 수 있다.

#### 4. 『현금 조선문전』의 품사 분류

『현금 조선문전』은 간행된 이규영의 유일한 遺著로 알려진 책이다. 이는 중등학교 초급용 文法教科書이다.<sup>17)</sup> 제2편의 ‘씨’에 품사 분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 (4) 『현금 조선문전』의 품사 분류 및 그 용례

임 : 사람, 땅, 벼실, 날, 병, 신지, 한양, 막니지, 한가위, 고뿔, 맘, 슬기, 아춤, 가멸, 웃음, 나, 너, 저, 우리, 이, 그, 저, 곧, 괴, 대, 이, 것, 바, 줄, 수, 누구, 무엇, 얼마, 어대  
 엇 : 어질, 착하, 무겁, 무르, 곱, 밍, 날래, 재, 둥글, 검, 검영, 푸르, 펄영, 일, 늦, 오래, 많, 적, 흔하, 이러하, 저러하, 그러하, 어떠하  
 읊 : 웃, 피, 가, 놀, 맛, 질리, 먹, 입, 쓰, 쓰, 되  
 껏 : 가, 이, 껏서, 야, 아, 여, 이여, 서, 의, 는, ㄴ, 은, ㄹ, 을, 던, 을, 를, 로, 으로, 예, 에게, 에서, 보다, 처럼, 아, 어, 이, 게, 러, 려, 도록, 니, 매, 면, 으면, 거늘, 어늘, 아서, 어서, 으록, 어니, 거니, 도, 만, 는, 은, 던지, 야, 이야, 마다, 까지  
 잇 : 와, 과, 고, 이요, 면서, 다가  
 뻗 : 로다, 이로다, 도다, 구나, 느구나, ㅂ니다, ㄹ세, 예, 다, 어라, ㅂ니까, 리까, ㄴ가, ㄹ가, 나, 나, 느냐, 소서, 게, 아라, 거라, 어라  
 언 : 고, 요, 조, 한, 두, 여러, 모든, 새, 외, 올, 돌, 어느, 무슨, 윈  
 억 : 늘, 곳, 가끔, 어찌, 못, 아니, 참, 아마, 잘, 가장, 출렁, 얼룩

17) 김민수, 앞의 논문, 1980, 83쪽.

늑: 허허, 아이구, 압, 글세, 에그, 여보, 구구, 네, 오냐

(4)의 『현금 조선문전』은 품사를 9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주시경(1910), 김두봉(1916)의 9품사 체계를 방불케 한다. 『온갖것』, 『한글적새』에서 품사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 ‘때, 높, 술’을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즉, ‘높’의 청자높임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땃’에서 다루고 주체높임법의 ‘시’는 ‘동사의 바꿈’에서 다루고 있다. 매개모음에 해당하는 ‘술’은 여러 품사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제시한 용례로 ‘로, 으로, 먼, 으면, 여, 이여’ 등이 확인된다. 또한 『온갖것』, 『한글적새』에서 ‘을/를’, ‘의’를 주격 조사와 다른 품사에 소속시키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는 ‘것’이라는 품사 하나로 묶고 있다. 격조사와 함께 분류되어 있던 종결어미를 따로 분리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한 점도 다르다. 이는 『온갖것』, 『한글적새』에서 보이는 이규영의 문법적 특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저술은 6판에 이른 中等學校 초급용 문법교과서이므로 이규영의 문법적 특성을 여실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규영의 저술별 품사 분류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규영의 문법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온갖것』, 『한글적새』를 중심으로 장을 달리 하여 품사별로 다루도록 하겠다.

### Ⅲ. 이규영의 품사 분류에 대한 품사별 분석<sup>18)</sup>

앞장에서 이규영의 저술별 품사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품사별로 분석하겠는데 『온갖것』, 『한글적새』를 중심으로 여러 저술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부분, 다른 학자의 저술과 차이가 나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품사로 ‘임, 엇, 언, 억, 만, 금, 입, 읊, 업’ 등이 있는데 이 용어는 『온갖것』에서 가져온 용어이다.<sup>19)</sup> 이유는 이규영의 최초의 저술인 『온갖것』에서 사용된 용어가 이규영의 기타 저술과 다른 학자들의 저술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 임

‘임’에 대한 하위분류로 『온갖것』은 ‘제임, 넋임, 언임, 억임, 드임’을, 『말듬』은 ‘제임, 대임’을,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제임, 넋임’을 포함하고 있다.

18)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여러 저술 간의 논쟁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데 감사드린다. 본고는 동시대의 한국어학자들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이규영의 문법의 특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는 논문이지만 주시경, 김두봉을 비롯한 어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저술을 통해 일정한 부분 표출되므로 하나하나 일일이 제시하여 논의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19)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지적한 바를 받아들여 품사별 분석으로 제시한 품사의 선별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주시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말듬’, 김두봉의 인식을 많이 공유한 ‘현금 조선문전’과 달리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할 뿐 더러 이규영 자신의 특성이 보이는 ‘온갖것’과 ‘한글적새’에서 앞의 두 저술과 차이가 포착되는 품사를 선택하였다.

〈표 2〉 임의 하위분류

| 현대 용어 \ 저술 | 온갖것 | 말듬 | 한글적새 | 현금 조선문전 |
|------------|-----|----|------|---------|
| 명사         | 제임  |    |      |         |
|            | 넛임  | 대임 | 넛임   |         |
| 관형사        | 언임  | 언  |      |         |
| 부사         | 억임  | 억  |      |         |
| 감탄사        | 드임  | 놀  | 늑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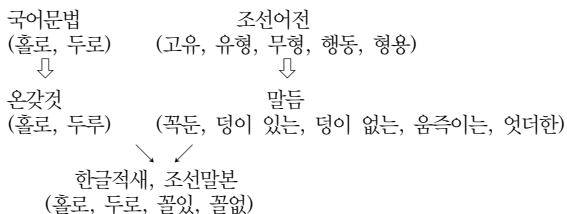
〈표 2〉에서 임의 하위분류가 겹치는 ‘제임, 넛임’만 다루겠다. ‘임’을 ‘제임’과 ‘넛임/대임’으로 나누어 각각 네 저술의 구체적인 하위분류를 보이겠다. 먼저 ‘제임’에 대하여 네 저술의 하위분류를 제시하겠다.

〈표 3〉 네 저술의 ‘제임’의 하위분류

| 용어 | 저술      | 하위분류  |          |          |         |        |  |
|----|---------|-------|----------|----------|---------|--------|--|
| 제임 | 온갖것     | 홀로    | 두루       |          |         |        |  |
| 제임 | 말듬      | 꼭둔 임씨 | 덩이 있는 임씨 | 덩이 없는 임씨 | 움죽이는 임씨 | 엇더한 임씨 |  |
| 제임 | 한글적새    | 홀로    | 두로       | 꼴잇       | 꼴없      |        |  |
| 제임 | 현금 조선문전 | 없음    |          |          |         |        |  |

〈표 3〉에서 보면 현행 학교문법의 명사에 해당되는 ‘제임’을 『온갖것』과 『말듬』에서 보통명사, 고유명사로 크게 둘로 나누고 있다. 『온갖것』의 하위분류는 주시경의 『국어문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말듬』은 김희상의 『조선어전』의 용어를 순한글로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sup>20)</sup> 다만 『말듬』은 『온갖것』에서 언급한 명사 이외에 “쓰기, 먹이, 꿈, 크기, 높이” 등 형태론적 단어와 “땀, 뚱, 무림, 푸르기, 똑똑하기, 큼, 높음” 등 통사론적인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온갖것』과 차이를 보인다. 『한글적새』는 『온갖것』의 두 부류 이외에 ‘꼴있는임’과 ‘꼴없는임’도 명사에 포함시켜 명사를 넛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하위분류를 하지 않았지만 제시한 용례를 보아 『말듬』과 비슷하다.

20) ‘제임’의 용어, 내용에 대하여 여러 저술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살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넋임/대임’에 대하여 네 저술의 하위분류를 제시하겠다.

〈표 4〉 네 저술의 ‘넋임/대임’의 하위분류

| 용어 | 저술      | 하위분류 |    |        |       |       |       |
|----|---------|------|----|--------|-------|-------|-------|
| 넋임 | 온갖것     | 가르침  | 모름 | 이카름    | 험     | 매임    |       |
| 대임 | 말듬      | 가르침  | 모름 | 사람의 대임 | 험의 대임 | 까닭 대임 | 때의 대임 |
| 넋임 | 한글적새    | 가르침  | 물음 | 사람     | 셈     | 매임    |       |
| 넋임 | 현금 조선문전 | 없음   |    |        |       |       |       |

〈표 4〉에서 보면 대명사에 해당되는 용어로 ‘넋임’과 ‘대임’을 쓰고 있다. 이중에서 ‘넋임’은 『말모이』, 주시경(1913), 김두봉(1916), 『한글적새』(1916~1919), 『현금 조선문전』(1920)에서 사용된 용어이고 ‘대임’은 주시경(1910), 『말듬』(1913)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네 저술에서 수사를 대명사에 포함하고 있는 점이 공통된다. 『온갖것』과 『한글적새』는 하위분류를 물론하고 제시한 용례도 비슷하다. 『현금 조선문전』에서 비록 하위분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사람, 가르침, 때, 매임, 물음, 셈’의 용례를 들고 있어 『온갖것』, 『한글적새』와 인식이 비슷하다. 기타 저술에서 독립하여 처리하고 있는 ‘가르침’, ‘모름/물음’을 『말듬』에서는 ‘사람, 문, 곳, 때’의 대임의 하위분류로 처리하고 있다. 제시한 용례는 기타 세 저술과 비슷하다.

## 2. 엇

‘엇’에 대한 하위분류로 『온갖것』은 ‘갈엇, 골엇’을, 『말듬』은 ‘넓은 엇씨, 험의 엇씨, 못친 엇씨’를,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갈엇, 꼴엇, 때엇, 셈엇, 가리침엇, 물음엇’을 포함하고 있다. 네 저술의 구체적인 하위분류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5〉 네 저술의 ‘엇’의 하위분류

| 용어 | 저술      | 하위분류  |       |          |   |     |     |    |
|----|---------|-------|-------|----------|---|-----|-----|----|
| 엇  | 온갖것     | 갈, 골  |       |          |   |     |     |    |
| 엇  | 말듬      | 넓은 엇씨 | 못친 엇씨 | 꼭둔험, 못친험 |   | 못친험 |     |    |
| 엇  | 한글적새    | 갈, 꼴  |       |          | 때 | 셈   | 가리침 | 물음 |
| 엇  | 현금 조선문전 | 갈, 꼴  |       |          | 때 | 셈   | 가리침 | 물음 |

〈표 5〉에서 보면 형용사에 해당되는 용어로 ‘엇/엇’을 쓰고 있다. ‘엇’의 하위분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온갖것』은 ‘갈’과 ‘골’로 양분하고 있지만 『말듬』은 ‘넓은 엇씨, 험의 엇씨, 못친 엇씨’로 삼분하고 있으며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은 ‘갈, 골, 때, 썸, 가르침, 물음’으로 6가지로 나누고 있다. 비록 하위분류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온갖것』의 ‘갈(性質)언, 골(形狀)언’과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의 ‘갈언, 골언, 때언’은 『말듬』의 ‘넓은 엇씨’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보인다. 『말듬』의 ‘험의 임씨’의 일부 용례는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의 ‘썸’에 대응된다. 『말듬』의 ‘험의 엇씨’ 중에 ‘꼭든험’의 전부 용례와, ‘못친험’의 ‘멸, 여럿’과 같은 용례는 뒤에서 언급될 『말듬』의 ‘언’에도 귀속시키고 있다. 아울러 ‘꼭든험’은 앞서 살핀 ‘대임’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이 수사와 형용사, 관형사에 넘나드는 현상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명사를 수식하는 성분으로 취급하는 영어문법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못친 엇씨’에서 제시한 용례는 앞서 살핀 대명사에도 포함한 내용으로 이들이 대명사와 형용사에 넘나드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리방식과 달리 『온갖것』,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 와서는 ‘많-, 적-’과 같은 형용사만 ‘썸’에 포함시키고 있어 여러 품사 범주에 넘나드는 현상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경우, 『말듬』은 『온갖것』,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갖것』,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은 『말듬』보다 의미에 따른 분류를 더 선호하는 듯하다.

### 3. 언

‘언’에 대한 하위분류로 『온갖것』은 ‘험, 비릇, 뜻밖, 홀로, 덩이, 재리, 가림, 모름’을, 『말듬』은 ‘엇던 언씨, 움의 언씨, 험의 언씨’를, 『한글적새』에서는 ‘가리침, 가림, 썸, 물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하위분류를 하지 않았지만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앞 세 저술의 구체적인 하위분류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6〉 네 저술의 ‘언’의 하위분류

| 용어 | 저술      | 하위분류 |       |                |       |       |       |    |
|----|---------|------|-------|----------------|-------|-------|-------|----|
| 언임 | 온갖것     | 비릇   |       | 재리, 홀로, 뜻밖, 가림 |       |       | 험, 덩이 | 모름 |
| 언  | 말듬      |      | 엇던 언씨 |                | 엇던 언씨 | 움의 언씨 | 험의 언씨 |    |
| 언  | 한글적새    |      | 가리침   | 가림             |       |       | 썸     | 물음 |
| 언  | 현금 조선문전 | 없음   |       |                |       |       |       |    |

〈표 6〉에서 보면 관형사에 해당되는 용어인 ‘언’을 『현금 조선문전』을 제외한 다른 저술에서는 하위분류하고 있다.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하위분류를 하지 않고 용례만 제시하고 있지만 『한글적새』와 많이 비슷하다. 따라서 『한글적새』와 같다고 판단하고 처리하겠다. 『온갖것』은 비교적 상세하게 ‘언’을 분류하고 있다.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은 『온갖것』의 ‘험, 가림, 모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온갖것』의 ‘덩이’에서 제시한 용례는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의 ‘썸’에 편입시키고, ‘재리’에서 제시한 용례를 ‘가림’에 편

입시키고 있다. 『온갖것』의 ‘언’의 분류에 없는 ‘가리침’이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 보이고 있다. 앞 세 저술에서 다 같이 설정하고 있는 ‘험의 언씨’에서 『온갖것』과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 『말듬』이 갈리고 있을 뿐더러 앞 두 저술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말듬』에서 언급되고 있다. 제시한 용례로 “붉은, 큰, 얇은”, “가는 오는, 먹은” 등이 보인다. 『말듬』에서 “언씨는 거진다 엇씨나 움씨에 ㄴ, 은, 는 을 부치어 바꾸게 함<sup>21)</sup>”이라고 하였다. 이는 ‘엇, 움’에 ‘ㄴ, 은, 는’을 붙이어 된 것은 ‘언’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말듬』의 ‘엇던 언씨’에 ‘이, 그, 저’와 ‘엇’에 ‘ㄴ, 은, 는’이 붙어서 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둘을 한데 묶은 것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기능이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언’에 포함하고 있는 ‘이, 그, 저’를 주시경(1910)에서는 “이 저 그는 밋언이니 다른 기가 박 구이어 언 몸이 된 것이 안이요 그 몸의 밋이 언이라 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서 『말듬』은 주시경의 해석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품사 분류를 보이는 『온갖것』의 내용을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온갖것』에서 ‘언’으로 보고 있는 ‘무릇’과 ‘다만’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사 또는 부사’, ‘부사’로 기술하고 있어 당시 ‘언’에 분류한 단어의 선택에서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억

‘억’에 대한 하위분류로 『온갖것』은 ‘견쥌, 때, 험, 막이, 어림, 꿀음, 짓골, 몬빋, 거듭’을, 『말듬』은 ‘엇던 억씨, 움의 억씨, 일인억씨, 때의 억씨, 곳의 억씨, 없안 억씨, 대답 억씨’를, 『한글적새』에서는 ‘견쥌, 때, 썸, 막음, 어림, 짓골, 빗갈, 거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하위분류를 하지 않았지만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 세 저술의 구체적인 하위분류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7〉 네 저술의 ‘억’의 하위분류

| 용어 | 저술         | 하위분류                        |          |          |      |          |          |          |          |
|----|------------|-----------------------------|----------|----------|------|----------|----------|----------|----------|
| 억임 | 온갖것        | 견쥌, 험,<br>어림, 짓골,<br>몬빋, 거듭 |          |          | 꿀음   | 때        |          | 막이       |          |
| 억  | 말듬         |                             | 엇던<br>억씨 | 움의<br>억씨 | 일인억씨 | 때의<br>억씨 | 곳의<br>억씨 | 없안<br>억씨 | 대답<br>억씨 |
| 억  | 한글적새       | 견쥌, 썸,<br>어림, 짓골,<br>빗갈, 거듭 |          |          |      | 때        |          | 막음       |          |
| 억  | 현금<br>조선문전 | 없음                          |          |          |      |          |          |          |          |

21) 이규영, 『말듬』, 『歷代文法大系』 1-113, 1913, 30ㄴ쪽. 직접 인용한 부분은 따옴표로 제시하고 편의를 위하여 인용된 부분은 현대의 띄어쓰기를 따랐음을 밝혀 둔다. 이하 마찬가지이다.

〈표 7〉에서 보면 부사에 해당하는 역을 『현금 조선문전』을 제외한 다른 저술에서는 하위분류하고 있다.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하위분류를 하지 않고 용례만 제시하고 있지만 『한글적새』와 많이 비슷하다. 따라서 『한글적새』와 같다고 판단하고 처리하겠다. 『온갖것』과 『한글적새』는 ‘꼴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다른 분류에서 일치한다. ‘아니’의 처리에서 『말듬』과 같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형사와 평행되게 처리되고 있는 ‘엇던 억씨’와 ‘움의 억씨’는 『말듬』이 『온갖것』,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과 현저하게 다름을 잘 보여준다. ‘엇던 억씨’에 대한 해석은 김희상의 『조선어전』(19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상(1911)에서는 ‘엇던 억씨’를 ‘形容副詞’로 부르고 『말듬』과 똑같은 용례를 제시하면서 “形容의 義를 含有한 부사를 稱하리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제시한 용례 중에 “매오, 잘, 펍, 너무, 몹이, 가장”은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이고, “불게, 크게”는 형용사에서 부사로 전성된 것이므로 이들 용례를 한데로 묶은 것이다. 『말듬』에서 “억씨는 거진다 움씨나 엇씨에 게 도록 고저 들을 부치어 박구임과 임씨에에서, 으로, 에게 들을 부치어 바구임이 있나 이라”라고 해석하고 있다.<sup>22)</sup> 이는 ‘엇, 움’에는 ‘엇, 움’에 ‘게, 도록, 고저’가 붙어서 된 것을 ‘억’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더러, ‘임’에는 ‘임’에 ‘에게’가 붙어서 된 것을 ‘억’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말듬』에서 보이는 부사의 용례에 통사적 단어가 존재함을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용언에 관형사형과 부사형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통사적 구성을 하나의 단어로 보고 있으므로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를 아직 독립적인 단어로 인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주시경(1910)에서처럼 단어를 문장 기능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만

『온갖것』, 『말듬』과 『한글적새』 세 저술에서 보이는 ‘만/만이’ 중에 ‘만이’는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에서 ‘것’을 하위분류할 때 사용한 문법 용어이다. 주시경(1910)의 ‘만이’는 뒤에서 보게 될 ‘금이’와 ‘것’을 이룬다. 이 세 저술에서도 주시경의 문법 용어인 ‘만이’, ‘금이’를 쓰고 있다.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것’을 쓰고 있는데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의 용어이다. 이는 앞 세 저술에서 보이는 ‘만이’와 ‘금이’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온갖것』, 『한글적새』에서는 ‘만’과 ‘금’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말듬』과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만이’와 ‘금이’를 묶어서 ‘결’의 하위분류로 다루고 있다. 이는 분명히 같은 문법 용어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갖것』, 『한글적새』에서 ‘만’은 ‘심’과 ‘땃’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처럼 ‘만’에 ‘심’과 ‘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말모이』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는 이규영의 인식이 『말모이』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여기서는 『온갖것』의 ‘심’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루고 ‘땃’과 ‘금이’는 다음에 절을 달리 하여 다룰 것이다. 구체적인 하위분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2) 이규영, 앞의 책, 1913, 31ㄱ쪽.

〈표 8〉 네 저술의 ‘만/만이’의 하위분류

| 용어  | 저술      | 하위분류       |    |     |            |
|-----|---------|------------|----|-----|------------|
| 심만  | 온갖것     | 다만, 덩이, 나뭇 | 부름 |     |            |
| 만이결 | 말듬      | 임이만        |    | 씀이만 | 넓은만        |
| 심만  | 한글적새    | 다만, 덩이,    | 부름 |     | 같음, 다름, 홀로 |
| 것   | 현금 조선문전 | 임자것        |    |     | 돕음것        |

〈표 8〉에서 보면 『온갖것』과 『한글적새』에서는 ‘만’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면서 그 하위분류에서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말듬』과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만이’를 ‘결’의 하위분류로 처리하고 있다. 『온갖것』의 ‘심’은 『말듬』의 ‘임이만’에, 『한글적새』의 ‘다만, 부름, 덩이’에, 『현금 조선문전』의 ‘임자것’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말듬』에서 보이는 ‘씀이만’은 다른 저술의 ‘금’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온갖것』과 『한글적새』에서 ‘심’의 하위분류인 ‘덩이’로 보고 있는 ‘에서’를 『말듬』과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금’으로 보고 있다. 『말듬』의 ‘넓은만’, 『한글적새』의 ‘같음, 다름, 홀로’, 『현금 조선문전』의 ‘돕음것’은 대개 『온갖것』의 ‘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보이는 ‘둘’은 ‘돕’의 하위분류 중 하나이다. 따라서 『온갖것』에서는 ‘심’의 범위를 격조사에 한정하지만 다른 저술에서는 보조사도 포함시키고 있다. 네 저술 중에서 『말듬』이 제일 상세하다. ‘을/를’의 처리에서 보이는 차이는 통사론에서 문장 구조를 처리하는 것과 평행되게 진행되므로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를 제외한 점을 비교해 보면 『말듬』과 『현금 조선문전』이 상대적으로 같은 점이 더 많이 포착된다.

‘맺’에 대한 하위분류로 네 저술에서 모두 ‘홀로, 물음, 이름, 시김’을 포함하고 있다.

〈표 9〉 네 저술의 ‘맺’의 하위분류

| 용어 | 저술      | 하위분류 |    |    |    |
|----|---------|------|----|----|----|
| 맺만 | 온갖것     | 홀로   | 물음 | 이름 | 시김 |
| 끗  | 말듬      | 이름   | 물음 | 시김 | 홀로 |
| 맺만 | 한글적새    | 물음   | 홀로 | 이름 | 시김 |
| 맺  | 현금 조선문전 | 홀로   | 이름 | 물음 | 시김 |

〈표 9〉에서 보면 『온갖것』, 『한글적새』에서 ‘심’과 함께 ‘만’을 이루는 ‘맺’은 『말듬』에서는 ‘끗’에, 『현금 조선문전』의 ‘맺’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끗’, ‘만’은 『국어문법』, 『말모이』에서 사용한 주시경의 용어이고, ‘맺’은 『조선말본』에서 사용한 김두봉의 용어이다. 네 저술에서 ‘홀로, 물음, 이름, 시김’의 배열순서가 다르다. 배열순서로 말하면 『말듬』의 것이 현행 학교문법의 배열순서와 비슷하다. 『말듬』과 『현금 조선

문전』의 용례를 보면 시제와 청자높임법의 등급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즉, 『온갖것』, 『한글적새』에서 언급된 ‘맺’은 『말듬』, 『현금 조선문전』에서 언급하는 ‘끗/맺’과 다루는 층위가 다르지만 이들의 하위분류 및 그 용례는 비슷하다.

## 6. 금

『온갖것』, 『말듬』과 『한글적새』 세 저술에서 보이는 ‘금/금이’ 중 ‘금이’는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에서 ‘껏’의 하위분류를 시도할 때 사용한 문법 용어이다. 앞서 살펴본 ‘만/만’과 함께 ‘껏’을 이룬다. ‘금이’에 대한 인식에서도 앞서 살펴본 ‘만/만’처럼 『온갖것』과 『한글적새』는 비슷한 점이 많으나, 『말듬』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차이는 ‘만/만’처럼 현저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금 조선문전』에서 ‘껏’의 하위 개념인 딸림것과 매임것이 앞 세 저술의 ‘금/금이’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네 저술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겠다.

〈표 10〉 세 저술의 ‘금/금이’의 하위분류

| 용어  | 저술      | 하위분류 |     |     |     |
|-----|---------|------|-----|-----|-----|
| 금   | 온갖것     | 뚝    | 갈   | 손   | 깍   |
| 금이결 | 말듬      | 없음   |     |     |     |
| 금   | 한글적새    | 뚝이긋  | 그림긋 | 깍음뚝 | 꾸밈뚝 |
| 껏   | 현금 조선문전 | 딸림것  |     | 매임것 |     |

〈표 10〉에서 보면 『온갖것』에서 하위분류로 둔 ‘뚝, 갈, 손, 깍’은 『한글적새』에서 대체로 그대로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온갖것』과 『한글적새』의 ‘깍’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지적해야 할 것이다. 『온갖것』에서 상위 범주로 존재하던 ‘깍’은 『한글적새』에 와서는 ‘꾸밈’이라는 용어로 바뀌고 동시에 ‘뚝’의 하위 범주로 존재한다. 이뿐만 아니라 용례를 통하여 『온갖것』의 ‘손’은 『한글적새』의 ‘깍음’에, 『온갖것』의 ‘깍’은 『한글적새』의 ‘꾸밈’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말듬』에서 ‘금이’를 더 이상 분류하지 않았지만 제시한 용례로 보아 대체로 『온갖것』의 ‘손’, 『한글적새』의 ‘깍음’에 대응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온갖것』의 ‘손, 깍’과 『한글적새』의 ‘깍음뚝, 꾸밈뚝’은 『현금 조선문전』의 ‘매임것’에 대응되는데 이들은 김두봉(1916)의 매임토(關係吐)와 비슷한 면을 보인다. 『온갖것』의 ‘뚝, 갈’은 『한글적새』의 ‘뚝이긋, 갈이긋’과 『현금 조선문전』의 딸림것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또한, 『온갖것』, 『말듬』,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등 저술의 용례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을/를’의 처리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말듬』에서만 ‘만’에 분류하고 있고 기타 저술에서는 『말듬』의 ‘금이’에 분류하고 있다. 『말듬』은 주시경(1910)과 같이 ‘만’을 ‘임이나 씹이’에 ‘직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을/를’을 ‘만’에 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타 저술에서는 ‘만’을 ‘주어’를 되게 하는 토로 인식하므로 ‘을/를’을 ‘만’에서 배제하고 ‘금’에 편입시킨 것이다.

‘금’의 하위분류에 포함시킨 ‘의’는 『온갖것』, 『한글적새』, 김두봉(1916)에서 확인되는데 『말듬』에서는 ‘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주시경(1910)의 ‘의’에 단어의 자격을 주지 않은 점을 수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시경(1910)의 ‘금’의 하위분류에서 ‘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주시경(1910)의 본드 八의 “저 불은 봄꽃이 곱게 피오”에서 “봄(의) 꽃의 (의)는 속뜻으로 두어 임기 ‘봄’을 언기 되게 하는 것으로 볼 것이요. 또 임이의 뜻이 있는 ‘봄’을 금이가 되게 하는 것으로 볼 것이니라.”라는 해석을 통해 ‘봄의’는 ‘언’으로 풀이되므로 현행 학교문법에서 속격 조사에 묶이는 ‘의’는 주시경(1910), 『말듬』에서 단어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 7. 입, 읊, 업

‘입, 읊, 업’을 품사로 인정하고 있는 저술로 『말모이』, 『온갖것』, 『한글적새』가 있다. 앞서 2장에서 『온갖것』의 품사 분류 및 그 용례 중에서 7절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 (입) [名詞를 뜻바꾸게 하든지 形動을 名詞되게 하는 몸] 들, 뿐, ㅁ, 기, 이, 들레
- (읊) [動詞를 뜻바꾸게 하든지 名形을 動詞되게 하는 몸] 이, 어지, 으리, 지
- (업) [형용사를 뜻바꾸게 하든지 名動을 形容詞되게 하는 몸] 차, 알, 룬, 슥

‘입, 읊, 업’에 대한 해석에서 이들은 ‘뜻바꿈, 몸바꿈’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갖것』의 ‘입’에는 ‘뜻바꿈’하는 ‘들, 뿐’과 ‘몸바꿈’하는 ‘ㅁ, 기, 이, 들레’가, ‘읊’에는 ‘뜻바꿈’하는 ‘이, 어지’와 ‘몸바꿈’하는 ‘으리, 지’가, ‘업’에는 ‘뜻바꿈’하는 ‘차, 알’과 ‘몸바꿈’하는 ‘룬, 슥’이 있다. 『온갖것』과 『한글적새』에서 보이는 용례를 통하여 ‘접사’를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의 다른 저술들에서는 단어의 형성요소로 파악하고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가령 『말듬』을 보면 ‘접사’를 ‘임씨의 갈래’에서 다루고 있어, 단어의 형성요소로만 파악되고 있다고 여겨진다.<sup>23)</sup>

## Ⅳ. 결 론

이규영의 품사 분류는 『온갖것』이 『말모이』와 같이 22개를 설정하고, 『말듬』에서 9개, 『한글적새』에서

23) 송철의(『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총서 35,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59쪽)는 “주시경 『말의 소리』(1914)에 와서도 ‘ㅁ, 기’는 여전히 품사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단어형성 요소로만 인식한 듯하다.”고 언급하였다.

15개, 『현금 조선문전』에서 9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품사의 분류를 주시경과 김두봉의 영향관계 속에서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를 ‘언’, ‘억’에 포함했는지에 따라 영향관계가 달리 파악된다. 『말듬』은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과 부분적으로 김희상의 『조선어전』(1911)의 영향을, 『온갖것』은 주시경(1910), 『말의 소리』(1914), 『말모이』의 영향을, 『한글적새』는 주시경(1910)과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의 영향을, 『현금 조선문전』은 김두봉(1916)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적으로 주시경의 영향을 받은 『말듬』과 김두봉의 영향을 받은 『현금 조선문전』을 제외한 『온갖것』과 『한글적새』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하면서도 나름대로 이규영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예컨대, 주격 조사를 ‘만’에, 목적격 조사를 ‘금’에 포함시키는 이규영의 처리 방식이 주시경의 용어인 ‘만이’와 ‘금이’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이해한 기초 상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이규영은 ‘만’에 목적격 조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금’에 포함시키지만 주시경과 김두봉은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를 하나로 묶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종결어미를 ‘만’에 포함하고 있지만 주시경이나 김두봉은 ‘끗’ 또는 ‘맺’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밖에 ‘입, 업, 읊’의 용례로 제시한 파생접사를 품사로 파악하고 있지만 주시경과 김두봉은 단어형성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 차이가 포착된다.

요컨대, 김민수(198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규영 문법은 주시경 문법에서 파생되어 김두봉 문법에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여 이루어진 제3의 문법이다. 이처럼 제3의 문법 인식을 담은 이규영의 품사 분류에 대한 인식은 동시대의 한국어학자들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이규영 나름대로의 문법적 특성을 자세하게 드러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복수, 『國語文法史研究』, 형설출판사, 1972.  
 고영근·이현희, 『주시경, 국어문법』, 탑출판사, 1986.  
 김두봉, 『조선말본』(『歷代文法大系』 1-22), 탑출판사, 1916.  
 김윤경, 『朝鮮文字及語學史』, 조선기념도서출판관, 1938.  
 김희상, 『조선어전』(『歷代文法大系』 1-19), 1911.  
 이규영, 『온갖것』(『歷代文法大系』 1-112), 1913.  
 이규영, 『말듬』(『歷代文法大系』 1-113), 1913.  
 이규영, 『한글적새』 ㄱ(『歷代文法大系』 1-114), 1916~1919.  
 이규영, 『현금 조선문전』(『歷代文法大系』 1-27), 1920.  
 주시경, 『국어문법』(『歷代文法大系』 1-11), 1910.  
 주시경, 『말의 소리』(『歷代文法大系』 1-13), 1914.

- 김민수, 「이규영의 문법연구」, 『한국학보』 6: 2, 일지사, 1980.
- 김민수, 「『말모이』의 편찬에 대하여」, 『동양학』 13, 1983.
- 김병문, 「주시경의 ‘씨난’과 『말모이』의 관계」, 『주시경과 그의 시대언어적 근대의 기획』, 소명출판, 2013.
- 송철의,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총서 35,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유형선, 「근대 국어국문학자의 재조명: 김두봉의 문법관에 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87, 2004.
- 이병근, 「最初의 言語辭典 『말모이』(稿本)〈알기〉를 중심으로」, 『언어』 2: 1, 1977.
- 정혜린, 「稿本 『한글적새』 문법의 어학사적 위치에 대한 일고찰」, 『국어학논집』 7, 역락, 2011.
- 최낙복, 『개화기 국어문법의 연구』, 역락, 2009.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7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 Abstract ■

---

### On Lee Gyu-yeong's Study about Parts-of-Speech of Korean in Relation with Other Contemporary Scholars

Jin, Haijin\*

The Parts-of-Speech categorizing suggested by Lee Gyu-yeong(1890~1920) had changed through his lifetimes. In *Ongatgeot* and *Malmoi*, which are his early works, 22 parts-of-speech was suggested. In *Maldeum*, which is his third, 9 was suggested; in *Hangeuljelksae*, fourth, he added 6 more and suggested 15; in *Hyeongumjoseonmunjeon*, his fifth and last, came back to 9. The motivation underlying these changes can be understood by comparing his works to works by Ju Si-kyeong and kim Du-bong. His explanation about adnominal and adverbial conjugation shows that *Ongatgeot* was influenced by Ju Si-kyeong's *Maluisori*(1914); *Maldeum* by Ju Si-kyeong's *Gugeomunbeop*(1910); *Hangeuljelksae* and *Hyeongumjoseonmunjeon* by kim Du-bong's *Joseonmalbon*(1916). Although Lee Gyu-yeong was under influence of Ju Si-kyeong and kim Du-bong, he developed his originality in analyzing *Man* and *Geum*. He proposed different system from Ju Si-kyeong's, while he fully understood what his colleagues suggested. For example, he categorized final Ending as *Man*, while others categorized them as *Maet* or *Kkeut*.

**[Key Words]** parts of speech, correlation, grammatical terms, eon, eok, man, geum, ip, eop, up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n Language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